



안녕, 나는 데미스 형이야!

체스 두던 작은 아이가 노벨상까지 받은 이야기

CHAPTER 01
CHAPTER 01

4살, 체스를 시작했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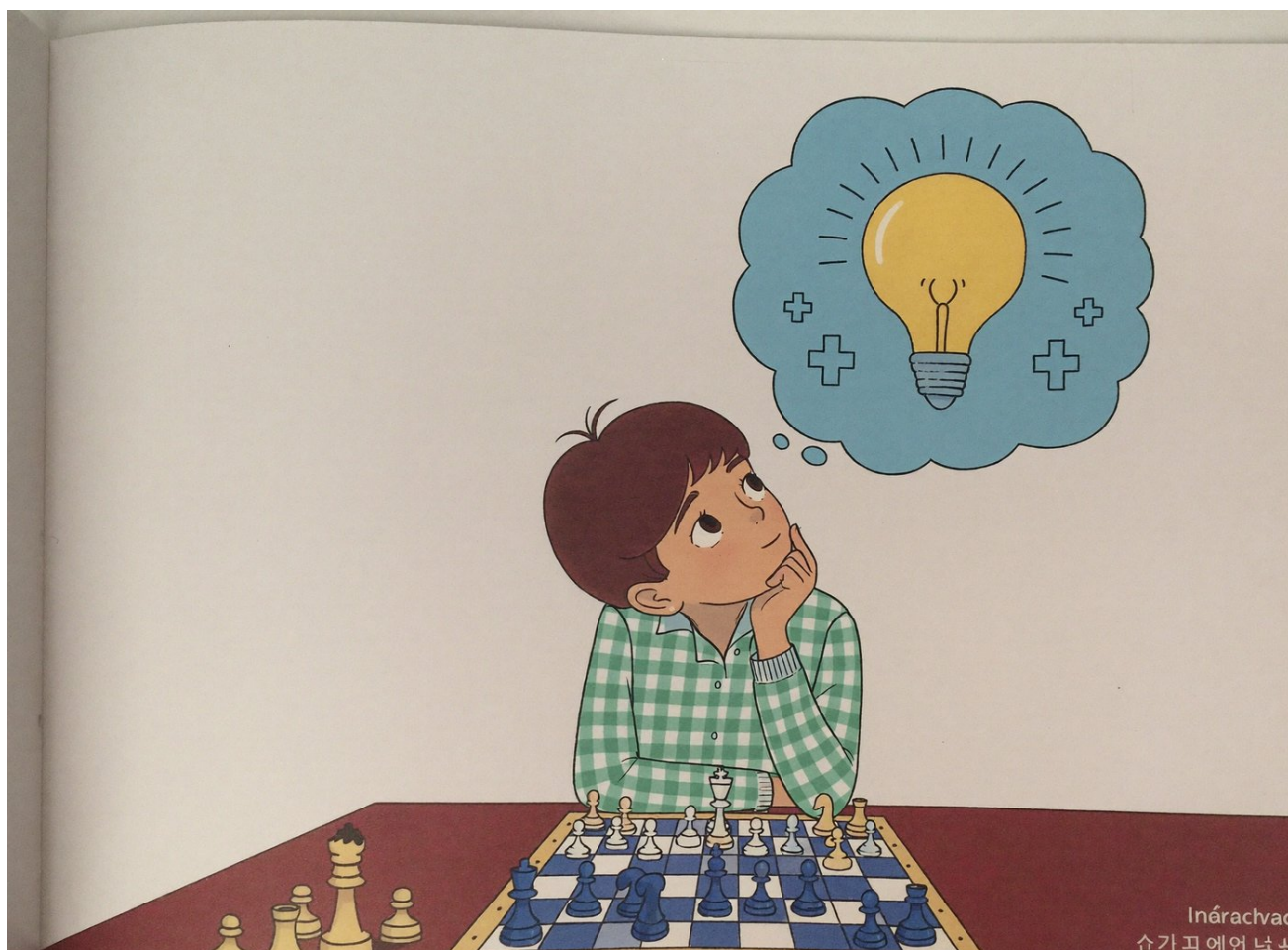
STORY

데미스 형은 4살에 처음 체스를 배웠어요.

6살에는 런던에서 "가장 잘 두는 8살 이하 아이"가 됐고,
12살에는 또래 세계 2등이 됐대요. 정말 대단하죠?
그런데 12살 때, 데미스 형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—

CHAPTER 02
CHAPTER 02

12살, 큰 질문이 떠올랐어



STORY

"체스만 두면 아까워!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."

데미스 형은 챔피언이 될 수 있었지만, 다른 길을 택했어요.

체스에서 배운 "생각하는 법"으로,

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더 큰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.

CHAPTER 03
CHAPTER 03

17살, 게임도 만들고 공부도 했어



STOR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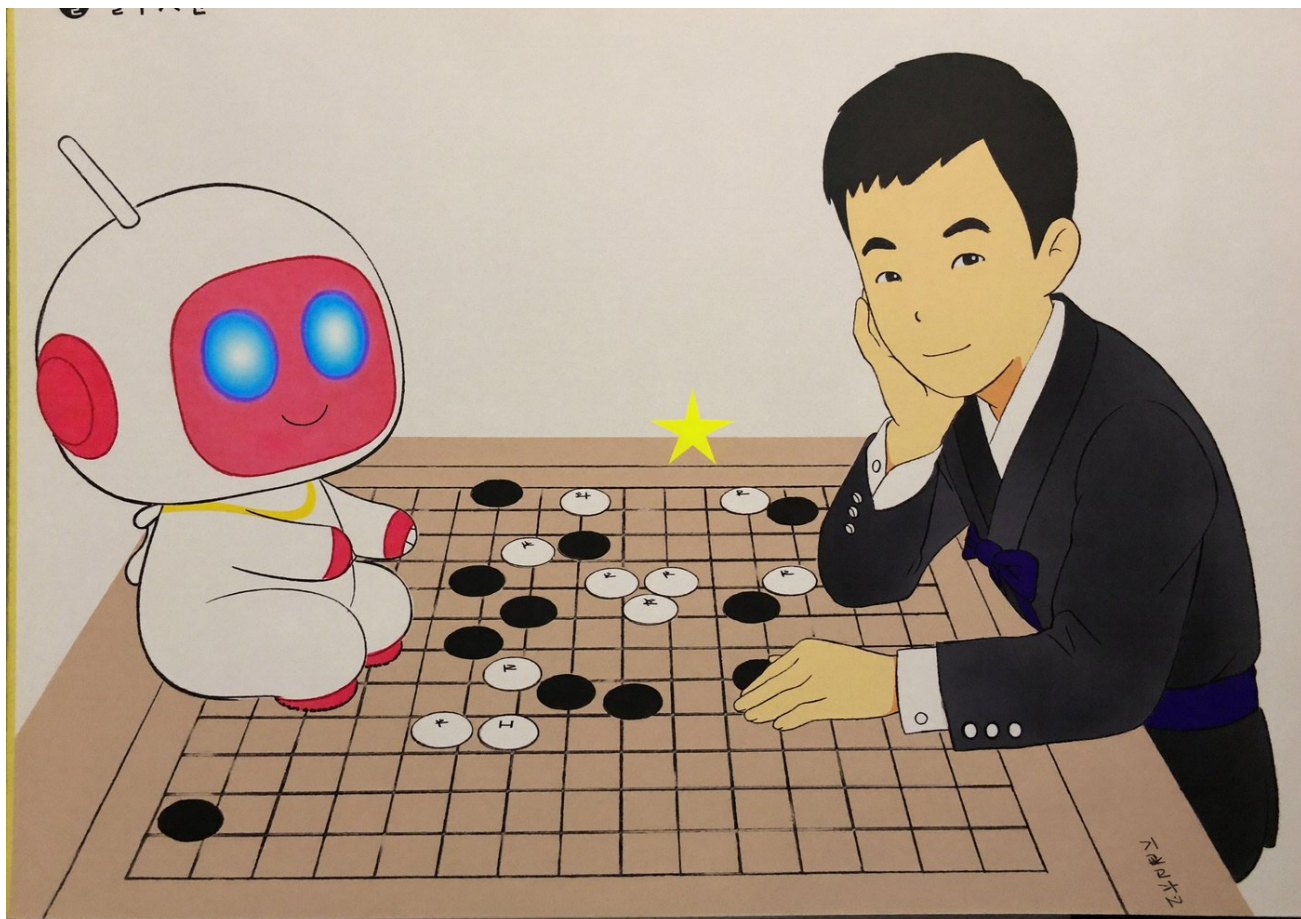
17살에 게임 회사에 들어가 세계적인 게임을 만들었어요.

그리고 대학에서 컴퓨터과학을 공부하고,
사람의 뇌까지 공부해서 박사가 됐대요.

"컴퓨터를 사람처럼 똑똑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."

CHAPTER 04
CHAPTER 04

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날 (2016년)



STORY

알파고는 "37번째 수"라는 신기한 수를 뒀어요. ☒

사람이라면 "만 번에 한 번" 둘까 말까 한 수였대요.

어른들도 "우와, 이게 뭐지?" 하고 놀랐어요.

결과는 알파고가 4번 이겼고, 이세돌 9단이 1번 이겼어요.

CHAPTER 05
CHAPTER 05

사람을 도울 진짜 일



STORY

사람 몸 속에는 "단백질"이라는 작은 기계가 있어요.

근육도, 머리카락도, 면역세포도 다 단백질이에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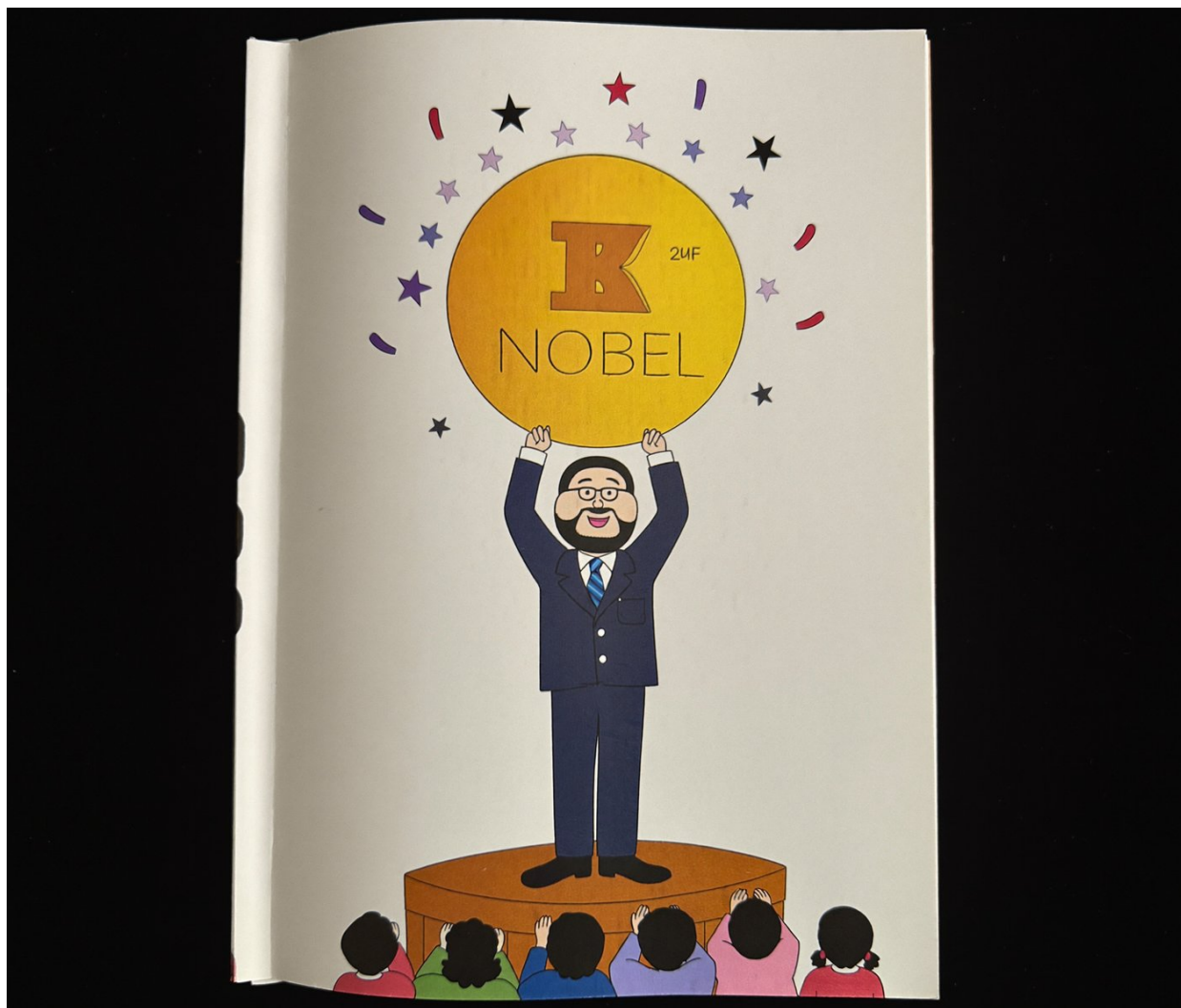
그런데 이 단백질이 어떻게 "접혀서" 그 모양이 되는지,

50년 동안 어른들도 풀지 못했어요.

→ 데미스 형의 시가 도전! 알파폴드를 만들었어요. ☒

CHAPTER 06
CHAPTER 06

그리고 노벨상까지!



STORY

2024년, 데미스 형은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. ☒

알파폴드로 단백질의 비밀을 푼 게 인정받은 거예요.

시를 만든 사람이 노벨 "화학상"을 받은 건 처음이래요!

데미스 형은 알아낸 단백질 모양 "2억 개"를
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공짜로 나눠줬어요. ☒☒

LAST CHAPTER
CHAPTER 07

너도 할 수 있어! ☒

네 안에도 데미스 형 같은 "큰 질문"이 있어!



YOUR TURN

엄마랑 같이 이야기해봐요 ☒

Q1

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뭐야?

Q2

그걸로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을까?

Q3

오늘 작은 한 걸음, 뭘 해볼까?